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9월 13일 (제81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에배 워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환경을 만들어라

미국의 시골학교 선생님이 음악교육을 위해 피아노 한대가 필요했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 회사의 포드회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회장님, 시골학교인지라 피아노가 없습니다. 학교에 피아노 한대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 답장이 왔다. 열어 보니 피아노 값에는 턱없이 부족한 단 돈 100달러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시골 학교 선생님은 실망하지 않고 100달러로 땅콩을 사서 학교 부지에 심었다. 그 해 땅콩을 수확하여 시장에 내다 팔았더니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 이상이 모였다. 선생님은 포드회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다. “회장님의 도움으로 피아노 살 돈이 모아졌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원금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포드회장으로부터 답장과 함께 만 달러가 송금되어 왔다.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지만 대부분이 기부금이 작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작은 기부금에 대해서도 감사할 뿐더러 원금과 이익까지 돌려주시니 제가 감격하였습니다. 여기 만 달러를 보내드리니 피아노를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움을 청하시면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외 선교사 중에서 본부에서 주는 대로 돈을 다 써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돈으로 땅을 사 농장도 가꾸고, 작물도 키워 되레 본부에 현금을 송금하는 자가 있다. 김진 목사도 강릉에서 목회를 할 때 감자를 심어 교회 재정을 보충했었다. 환경을 만들어줘야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돈도 주고, 정보도 주고, 사람도 붙여 주고... 완벽한 환경에서 일 못할 자가 누가 있느냐. 식물은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사람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환경을 바꿀 수도,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 생각을 바꾸면 환경의 노예에서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됨을 알자.

지난 9월 3일 장성 예수중심교회 창립예배가 있었다. 장성에 교회를 개척해보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권유에 권지혜 전도사가 순종하고 기도로 세운 교회다. 이날 총회장 목사님은 권지혜 전도사에게는 목회 성공의 비결을, 참석한 많은 성도들에게는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을 간증을 통해 가르치셨다. “첫인상은 두 번 줄 수 없다. 그러나 단 한 번뿐인 첫인상은 대단한 위력을 가진다.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고관이며, 예수중심교회의 얼굴이다. 권 전도사가 매일 아침 만나는 사람마다 방글방글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고, 친절과 배려하는 마음과 예절 바른 이미지를 심는다면 주위에서 ‘저 사람이 누구야?’ 하고 물을 것이고, ‘저기 개척한 교회 전도사

야’, ‘예의가 깎듯해’ 하는 소문이 난다면 이미 목회는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것은 돌을 던진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의 잘못된 것이다. 남 탓 하지 말고 내 탓을 하고 자신을 반성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역목회를 하는 것이다. 어느 목사가 농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농번기 바쁜 때에 벵타이 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동네 주민들이 다 욕을 했다고 했다. 농촌에 개척을 했으면 바지 걷어 올리고 논에 들어가 같이 모를 심고, 피를 뽑아야 전도가 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권 전도사는 뼈 속까지 장성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의 말을 명심해야 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야 한다. 목회자에게 원칙은 기도와 말씀이다.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으로 목회는 절대 할 수 없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요즘 내가 기도원에서 우리 기도원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일을 할수록 마음이 맞아 일이 잘 되는 것을 느낀다. 우리 기도원 직원들은 이제 내 눈빛만 봐도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다 안다. 그들은 일당 백, 일당 천을 해낸다. 사람이 능력이고, 사람이 힘이다. 또한 꿀을 얻으려거든 꿀통을 발로 차지 마라.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부모님 대하듯, 어린 성도들은 내 아들 딸 대하듯 해라.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성도들을 대한다면 성도들이 권 전도사 품으로 몰려들게야. 그러나 성도



장성 예수중심교회 창립예배 (2015. 9. 3)

래’ 하고 입소문이 나게 될 것이다. 요즘 입소문은 천리만 가는 것이 아니다. 몇 초 만에 해외까지 간다. 그러므로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다.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 지역 부동산을 운영하는 노인네들에게 매일 몇 봉투 과자를 건네면서 인사하고 친절하게 했더니 나중에 그 노인들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저 교회 팬잖으니 가보라’고 했단다. 이미지 관리를 잘하면 애국의 산파가 이스라엘 산도들을 도운 것처럼 안 믿는 자들까지 돕는 역사가 일어난다. 권 전도사는 먼저 이 건물 주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라.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권 전도사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저 전도사는 진실해’, ‘사랑이 많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고전9:20~22). 또 권 전도사에게 미용 달란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지혜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준수해

가 상당한 내용이나 발설하고 다니고, 혹여 성도의 충언을 받아친다면 어디 교회가 여기뿐이겠니? 당장 떠나고 만단다. 다시 말하지만 고객은 품질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권 전도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를 보낸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니 매사 최선을 다해라.”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씀이다. 왜 목사님은 이 말씀을 반복하실까? 제발 깨닫고 실천하여 복을 받고 성공하라는 것이다. 부디 권지혜 전도사를 비롯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여 목회는 물론 각 분야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코스타리카 집회

9월 15일(화) ~ 25일(금)

많은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사55:1~13)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라가려하지 말고, 순종하고 가다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고 하신 말씀도 그분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고후1:18)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예’ 하고 순종하고 가다보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펜윅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은 후 무릎 거꾸로 들고는 “무 한 개씩을 밟아 나가 심는데 이렇게 심고 오시오.”라고 했습니다. 무릎 거꾸로 심고 오라는 명령 받은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서양분이시라 무릎 어떻게 심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렇다고 스승님 말씀대로 거꾸로 심을 수는 없지 않은가. 나중에 우리가 옳다는 것을 아실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무릎 제대로 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치규’라는 사람만은 선교사의 말대로 거꾸로 심었습니다. 펜윅은 자신의 명령대로 실천한 전치규를 선교 동역

마리를 구해 와서 예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축복하자 떡과 고기가 많아져서 그 많은 사람을 다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이란 한 지식이나 경험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그분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들을 벌



총회장 이초석 목사

하리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고후10:5~6).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축복하자 떡과 고기가 많아져서 그 많은 사람을 다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이란 한 지식이나 경험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그분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들을 벌

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창 22:15~18).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복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귀가 둔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말씀에 토를 달기 때문입니다. 제 30년 목회를 돌아보면서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오직 ‘예’ 했기 때문에 저 같은 불품없는 사람이 이 세

비록 우리는 현재까지 서울교회를 짓지 못했지만, 현재 전국과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명실 공히 세계 유일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 편에서라

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크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찌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신28:9~13).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이 대립되었을 때 과감히 내 생각을 접어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원하십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생각을 접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온다

자로 삼아 그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벧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이 남자만 5천명, 부녀자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 예수님은 빌립을 불러 “빌립아,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쥐라.”고 하셨습니다. 빌립은 그들을 먹일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립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정말 타당한 생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파는 곳도 없을뿐더러 설령 살 곳이 있어도 그렇지 무슨 돈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그러나 아십니까? 빌립의 생각은 타당할지언정 결국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는 분명히 그 분만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안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어린아이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장수가 복이 되게 하자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섰던 뜻을 품었음이니라”(왕상14:12~13).

복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에 대한 말씀이다. 그는 일찍 병들어 죽었으나 그것은 여로보암의 여러 아들 중 그 아들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섰던 뜻을 품었기 때문에 재앙을 보지 않고 편안히 죽어 묘실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는 것이다. 때로는 가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장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시편 34편 12절에 장수가 복이라고 하셨다. 특별히 장수가 복이 되려면 장수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야 진짜 복된 장수가 되는 것이다. 오래 살아서 자칫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을 버리고 간다면 그 장수는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것이다.

성경 인물 중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장수하였는데, 정말 아름답고 복된 장수였다.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들도 오래 살아 믿음대로 아기 예수를 만난 축복된 장수자들이다. 그러나 사울 왕 같은 사람은 노년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웃시아 왕도 그렇게 사랑받다가 노년에 스스로 교만하여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다가 문둥이가 되었고, 데마는 바울을 잘 섬기다가 세상이 좋아 결국은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다. 이들은 차라리 신앙 좋을 때 일찍 갔으면 더 좋은 사람들이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아버님이 평생 고집부리다가 88세에 교회에 나오셨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지 예배에 빠짐없이 6년여를 다니시다가 94세에 천국에 가셨다. 할머니 한 분은 82세에 친구들과 따라 전도 되어 오셨는데 성령 받으시고 너무 좋아 아들 전도하고 손자, 손녀를 전도해서 모두 성가대에 세우셨는데, 주일예배 드리시고 점심 드신 후 한 숨 주무시러 들어가셨다가 그대로 편안하게 85세에 천국 가셨다. 이들이야 말로 장수가 복 중의 복이 되신 분들이다. 반대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나이 많아 믿음이 시들해져서 가신 분들도 왜 없겠는가?

오래 살수록 믿음이 더욱 커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한다. 다윗처럼 미리미리 기도하자. 장수가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시 71:18).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시92:14).

주님, 내 인생에 가장 주님을 사랑할 때, 내 영혼이 가장 빛날 때 나를 데려가소서!

이시대 목사

썸 타는 교인

‘내꺼 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라는 가사로 된 ‘썸’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썸은 연인도, 친구도 아닌 관계를 일컫는 단어로, 즐기듯이 연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썸 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간만 보고 돌아다니는 교인,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3:15~16).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한 남자가 남군과 북군의 경계 선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군이 지나가면 남군을 응원했고, 북군이 지나가면 북군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도 바지는 남부 연합군의 군복인 회색을 입었고, 윗도리는 북부 연합군의 푸른색을 입고 다녔습니다. 얼마 후, 이 지역에서 양군 간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옷 덕분에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전쟁터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남군은 그의 윗도리 색깔을 향하여 총을 쏘았고, 북군은 그의 회색 바지를 향하여 총을 쏘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아합 왕 시절,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누가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대결을 했습니다. 이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바알신 편에 선 것도 아니고 두 가운데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엘리야가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왕상 18:21).

다른 것은 썸을 탈 수 있지만, 신앙만은 썸 탈 수 없습니다.

예수중심편집실



::교단소식::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가?



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습관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 제반사를 경영해야 하기 때문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처럼 주의 종은 다른 것은 차치하고 기도과 말씀에 전무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골라 쓰면 됩니다.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을 쓴 것처럼 하면 됩니다. 역할분담이지요. 그 분야에 합당한 자에게 일을 맡기면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삽니다. 성공한 농사꾼은 씨앗부터 고르는 법.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신앙과 능력으로 평가해서 앉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쓰면 됩니다. 사냥개든 진돗개든 똥개든 무슨 상관있습니까? 자기 몫만 잘 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드리곤 말씀은 오늘의 계란을 취하기보다 내일의 암탉을 키우십시오. 목회자들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접받는 것이나 좋아하고, 명령하거나 좋아합니다. 인터넷을 뒤져 대충 설교 준비합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꽃도 개화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바위틈에 이끼도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차선을 모릅니다. 오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로 능력을 받고, 말씀에 전무해야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의 상을 바라보고 오늘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지금 본토와 친구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주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면 그 날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이 시대를 뒤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30년 목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가르치셨다. 자고로 세미나란 성공한 자가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것이기에 목사님의 세미나는 명실 공히 최고였다. 소망하던, 어려운 발걸음을 한 타 교단 목사님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왕성해지기를 바란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귀를 기울이세요

학창시절의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중고등학교는 유명한 미션스쿨로 전교기독교회장은 전교 회장만큼 권위가 있었습니다. 다수 아이들의 투표로 전교기독교회장단에 선출된 저는 임원에서 잘렸습니다. 학교 목사님이 제가 이단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임원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를 전도하였습니다. 회사 동료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속칭 날라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동료를 변화시킬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전하였고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주일, 동료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온지 1시간만인 예배중간에 교회가 이단이라며 가버렸습니다. 거기에서 회사에서 저를 슬금슬금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여름 청소년연합수련회 홍보영상에 ‘샌드아트’라는 장르의 장면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렵게 담당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업을 해주기로 철썩 같이 약속한 샌드아트 작가들이 저마다 하루만 지나면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20명이 넘는 작가들에게 이단이라는 이유로 거절 당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먼저 걸으신 예수님과 총회장 목사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중심교회 성도들은 여기저기서 이런 핍박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청개구리의 고백

어릴 때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는 청개구리 이야기이다. 엄마 말을 듣지 않는 청개구리는 항상 엄마 말을 반대로 행했다. 가라면 오고, 오라면 가고, 하라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면 하고…。 청개구리 엄마는 항상 자신의 말에 반대로만 움직이는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언덕이 아닌 물가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하였다. 그러면 언덕에 묻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청개구리는 엄마의 마지막 말은 듣기로 결심하고 엄마의 말에 따라 엄마를 물가에 장사지낸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엄마가 걱정되어 청개구리는 항상 그렇게 우는 것이다.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을 ‘청개구리’라 한다. 나도 우리 집의 청개구리다. 대외적으로는 고분고분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편이지만, 이상하게 집에서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학창 시절에도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난 엄마 말을 정말 안 듣는다.

그런데 요즘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는데 대해서 크게 후회 중이다. 지난 10여 년간 매일 아침 운동 좀 하라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면서 어떻게든 운동을 하지 않고 학교로 도망 다녔던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운동 하라던 엄마의 말이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때늦은 깨달음도 함께 되새기고 있다.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삼 일을 갇혀 있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니느웨로 향했었다(욥1~2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일을 행해도 결국에는 돌고 돌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향할 수 있게 인도해주시는 그 분의 크신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다. 운동을 하지 않고 뻘질거리며 요리조리 도

망치던 내가 결국 아침저녁으로 수영과 복싱을 하며 느낀 점은 하라고 할 때 했어야 했다는 후회와 뒤늦게나마 운동을 할 수 있게 기다려준 상황에 대한 감사이다. 온몸 이곳저곳을 강타하는 근육통에 끄끙거리는 내 모습을 보며 응원하고, 매일 밤 다리에 파스를 발라주며 걱정해주시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의 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지금 내가 깨달은 것은 비록 엄마 말을 잘 들어야겠다는 사소한 것이지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그동안 내가 듣지 않았던 말들 중에는 엄마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시로 기도하며, 인내하고 온유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던 엄마의 말을 떠올려본다. 그리고 늦었지만 내 신앙에 근육통이 생기기 전에 나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빨리 돌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Good News

18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시골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을 환영하기 위해 준비하던 학생들이 장난기가 발동하여 선생님을 꿀탕 먹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선생님이 타고 올 마차의 바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뒤의 큰 바퀴가 앞으로 오게 하고 앞에 있는 작은 바퀴를 뒤쪽으로 보냈습니다. 기차를 타고 밤늦게 도착한 선생님은 그 마차를 타고 깜깜한 시골길을 지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다음날 날이 밝게 되자 왔던 길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선생님이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힘겹게 올라왔던 고갯길을 찾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옆집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곳에는 고갯길이 없는데요.” 이 말에 어리둥절해진 선생님은 마차를 살펴본 후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바퀴가 큰 바퀴로 잘못 끼워져 있어서 몸이 뒤로 누여진 채 고갯길을 오르듯이 힘겹게 올라왔지만 깜깜한 밤이라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삶의 바퀴를 잘못 끼우면 고통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깜깜한 인생길 속에서 고통 받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

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악한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보혈의 피 값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고통 받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후사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잘못 끼워진 바퀴를 바꾸어 끼듯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Edu Section::

눈물은 축복의 그릇을 만든다

문득 지금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니 그 시절의 수많은 눈물의 알갱이들이 진주처럼 알알이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 맺어 있음을 실감한다. 숱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고난의 시절은 누구에게나 있다. 십 수 년의 망설임 끝에 이초석 목사님의 귀신추방 비디오테이프를 본 후 내딛은 교회는 마치 천국과도 같았다. 그러나 천국은 눈물 없이 쉽게 얻지 못한다. 입교한 후, 읍의 고난만큼이나 혹독한 고난의 시절을 보내면서 매일 흘렸던 눈물방울들은 진주처럼 영글어서 신앙의 견고한 반석이 되어 천국을 소망하는 흔들림 없는 기독교인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사랑하는 딸아이가 고등학교 입학 후 첫 시험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수학 때문에 생각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었다. 딸아이가 머리채를 흔들면서 고래고래 대성

통곡했던 일이 기억난다. 또 대학 진학 후, 가정사로 힘겨워하던 딸아이가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밤마다 흘렸던 눈물을 모은다면 한 말은 되었을 법하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과 어려운 시절을 눈물로 극복한 딸은 지금 문학 박사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모인다는 공군사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난 후 그 눈물의 방울방울은 빛나는 축복의 그릇이 되어서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대입 시즌이다. 입학사정관 및 적성검사 등의 수시를 비롯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면접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어차피 해보야라고 포기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이다. 내 노력의 눈물과 땀방울이 반드시 좋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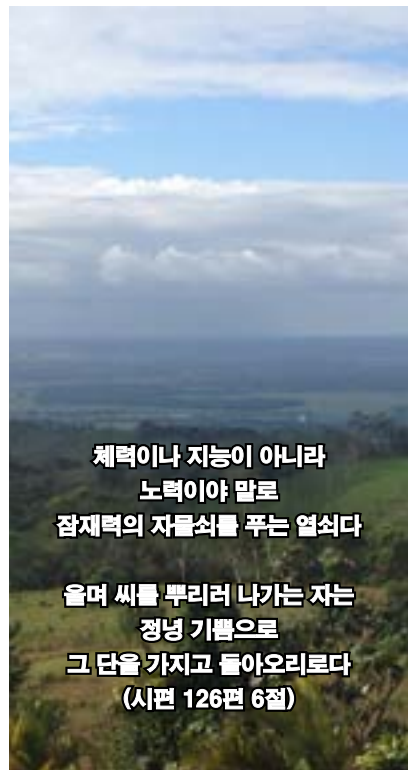
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있다. 몸의 모든 수분을 눈물로 흘려보내겠다는 독한 각오와 인내가 있다면 지금부터 흘리는 눈물은 분명히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우리에게 축복의 그릇이 되어 찾아와줄 것이다. 핑계와 변명은 눈물을 흘려가는 도둑이다. 즉, 내 인생의 축복을 흘려가는 도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부터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독한 삶을 살아볼 것을 입시생들에게 강권하고 싶다. 그리고 ‘3포, 7포, N포’ 등등 따위의 유행어로 청년들 스스로 미래의 인생을 제한하지 말기를 바란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성경의 말씀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내 인생의 사계절!

며칠 전만 해도 더워서 선풍기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처서가 지나더니 이젠 새벽녘에 제법 쌀쌀해서 이불을 덮어야 하는 가을이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시장에는 새콤달콤한 햇사과가 나와 있고, 길가엔 코스모스가 피고, 들판엔 고추잠자리가 마치 가을을 알리는 특파원들 같습니다. 모든 계절이 그렇듯 여름도 이내 지나가버리고 마는 것을, 뜨거운 햇빛이 자연과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혜택은 잊어버리고 그저 덥다는 말만 습관적으로 되풀이 하다 여름을 보낸 것 같아 조금은 멧쩍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사계절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계절은 덥고, 어느 계절은 춥고, 또 어느 날은 좋았다가 또 어느 날엔 갑자기 폭풍우가 쏟아지는 예측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말입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곡식과 실과의 풍성한 수확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모진 태풍 “고니”를 이겨내야만 상품가치가 있는 실한 열매로서 좋은 값으로 출하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사단의 세력과 귀신들의 공격에 맞서 이겨내야만 한다는 절대 절명의 영적전쟁을 하는 것과 많이 흡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동방의 의인 욥처럼 말입니다(욥기1장). 한 알의 대추도 저절로 영글지 않습니다. 몇 달간의 땀별과 세찬바람, 몇 번의 천둥소리에 익어갑니다.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비바람과 폭풍이 힘들고 혹독한 것이긴 하지만 태풍이 지나가야 바다에 영양분이 풍부해지고,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져야 대지가 깨끗해지고 땅이 열매를 내어주는 것처럼 내 인생의 시련과 아픔은 결국 나를 깨끗케 해주고 ‘갑절의 축복’(욥42:10)을 받는 거목이 되게 해 줄 것입니다.



체력이나 지능이 아니라
노력이야말로
잠재력의 자물쇠를 푸는 열쇠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6절)